
제76차 IEC 총회 참가결과 보고

2012. 10

기 술 표 준 원
국제표준협력과

I. 출장 개요

- 일자 및 장소 : '12.10.1(월)~6(토), 노르웨이 오슬로
- 출장목적 : IEC 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활동, 양자회담 개최 등을 통한 전기전자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활동 추진

□ 출장자

○ 기술표준원 대표단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1	최형기	기술표준정책국	국장	HoD/총회
2	오광해	국제표준협력과	과장	총회/SMB위원
3	노학엽	국제표준협력과	연구사	총회참석
4	임미희	국제표준협력과	연구사	총회/SMB
5	김경아	국제표준협력과	전문위원	총회/SMB
6	임헌진	IEC 파견관	과장	총회/SMB
7	김준호	적합성정책과	연구관	CAB

○ CB, SMB 등 정책위원 및 YP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비고
8	최갑홍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CB위원
9	신명재	한국표준협회	전문위원	SMB위원
10	백수현	산업기술시험원	연구위원	CAB위원
11	백수현	동국대학교	교수	CAB위원 후보
12	박진재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사원	'12년 IEC YP
13	박경호	LS산전	사원	'12년 IEC YP
14	성우철	표준협회	선임연구원	'11년 IEC YP
15	한상욱	한국전력공사	사원	'11년 IEC YP

* 태양광, 해양에너지 분야 기술위원회에 국내 전문가 40여명 참석

○ 참가국 : 71개국 1,100여명

* 일본(194), 중국(157), 미국(139), 독일(111), 영국(55), 프랑스(41) 등

□ 주요 일정

월일	회의명
10.1(월)	SMB 회의
10.2(화)	CAB 회의, IEC-APSG 회의, IEC Affiliate Forum
10.3(수)	CB 회의, 한-독 양자회의, 개도국 워크숍
10.4(목)	NC 회장 Workshop, NC 간사포럼
10.5(금)	IEC 본회의, 한중일 국장급회의, Open Session

II. 제76차 IEC 총회 주요논의 내용

- 정책위원회 표준화 활동 현황 보고에서는 시스템어프로치의 SMB, CAB 및 MSB의 협업 필요성 촉구
 - SMB/ahG 35(시스템 그룹) 활동 보고
 - ahG 35는 IEC 내에서의 시스템 활동 영역, 구조 및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시스템 TC 설립에 대한 의견을 SMB에 보고
 - 시스템 기술위원회(Systems Technical Committee)의 전환, 역할 및 접점영역(interfaces)에 대한 정의의 명확화, 시스템 자원그룹(Systems Resource Group) 의장과 위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차기 제네바 회의에서 보고 요망
 - TC 의장 임기 제한
 - 144차 SMB 회의('12. 2, 보스턴)에서 결의한 TC 의장 임기에 관한 우려 사항에 대한 SMB의 의견을 재정리하여 제146차 제네바 회의에서 보고
 - 적합성평가의 시스템 어프로치
 - 풍력발전, 해양에너지, 전기차 및 스마트그리드 등이 시스템 어프로치의 CAB 적용사례로 검토되고 있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그간의 추진배경, 경과, 활동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중점 논의
 - * 코디네이터사업과 시스템어프로치 적합성평가 연계 필요
 - 시장전략이사회(MSB)는 산업계로부터 얻은 직접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표준화 전략을 제시
 - 전기에너지 저장장치에 이어 세 번째 '대용량 재생에너지의 통합(Integration of large-scale renewable energies) 백서 발간
 - * 네 번째 백서 Microgrids for disaster preparedness & recovery가 준비 중

□ IEC 임원 선거결과

○ 차기 회장 선출 (2014-2016년 임기)

- Dr. Junji NOMURA(일본)가 선출되어 2013년부터 President-Elect으로 활동

○ CB 위원 선출 (2013-2015년 임기)

구분	국가	선출자
신규선출	이탈리아	Mr. Gianni Binacchi
	오스트리아	Mr. Gunter Idinger
	캐나다	Mr. Ed Tymofichuk
재선출	호주	Mr. Ralph Craven
자동선출	중국	Mr. Jun Xie

* 중국의 재정그룹A 진출에 따라 중국은 선거 없이 자동으로 CB위원직 획득

○ SMB 위원 선출 (2013-2015년 임기)

구분	국가	선출자
신규선출	호주	Mr. Kim Leon Craig
재선출	스웨덴	Mr. Svante Skeppstedt
자동선출	중국	Mr. Hong Dai

* 중국의 재정그룹A 진출에 따라 중국은 선거 없이 자동으로 SMB위원직 획득

○ CAB위원 선출 (2013-2015년 임기)

구분	국가	선출자
신규선출	한국	백수현(동국대 교수)
	스웨덴	Mr. Thomas Korsell
	영국	Mr. Simon Barrowcliff
재선출	중국	Mr. Weijun Liu

□ 차기 총회 개최지 결정

○ '13년 인도, '14년 일본(도쿄), '15년 벨라루스(민스키), '16년 독일, '17년 러시아, **'18년 한국**, '19년 중국, '20년 스웨덴

III. 주요 활동 결과

1 제32차 IEC CB 회의

□ 회의 개요

- 일시 : 2012.10.3(수) 08:30 ~ 17:30
- 참석자 : 최갑홍부회장

□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

- 영국 SAG 멤버
 - Sales Advisory Group(SAG)의 대표직에 영국의 Mrs. Shirley BAILEY-WOOD를 3년 임기로 임명
- 세 번째 부회장
 - CB는 시장전략위원회(MSB)에서 시장의 표준수요 예측 등의 업무를 가진 MSB 컨비너를 Vice-President로 선출하는 것에 동의
- IEC 정책이사회에 동시 회원가입
 - CB, SMB, CAB 선출과 관련한 중대한 규정을 나타내고 IEC 정책이사회에 동시 회원가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IEC의 절차 및 운영규정 (8.1항, 10.1항, 12.1항 Appendix 3)을 개정할 것을 권고
- TC/SC 의장 임기
 - TC/SC 의장 임기를 제한하는 문제는 차기 SMB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
- IEC Young Professionals
 - IEC 프로그램의 성공을 시작으로, 차세대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별 관련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을 언급

2 제143차 IEC SMB 회의

□ 회의 개요

- 일시 : 2012.10.1(월) 08:30~18:00
- 참석자 : 신명재위원(SMB 위원), 오광해과장(SMB 대체위원)
※ 임헌진과장, 임미희연구사, 김경아전문위원, 장경진선임 옹저버로 참석

□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

- SG2 [초고압기술(UHV) 표준화], ACTAD(전기송배전 자문그룹), ACTEL(통신 자문그룹)의 성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 검토
 - ACTAD와 SG2의 업무 조정 및 업무 범위의 명확화를 위해 차기 146차 SMB 회의 시, ACTAD의 의장과 SG2의 컨비너가 공동으로 두 위원회의 합병 또는 역할의 명확화에 대한 제안 보고 요망
 - ACTEL은 차기 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 활동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요구
 - TC111과 ACEA의 활동 중복 여부를 검토해 온 ahG 38의 경우, 12월 20일까지 ACEA의 업무 영역, 멤버십 구성의 적절성, 미션과 발전가능성 검토 및 규제와 환경적 효율에 대한 언급 등이 포함된 세부 보고서를 SMB에 제출 요구
- 시스템 그룹(ahG 35) 활동 보고
 - ahG 35는 IEC 내에서의 시스템 활동 영역, 구조 및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시스템 TC 설립에 대한 의견을 SMB에 보고
 - SMB는 ahG 35에서 제출한 시스템 활동에 대한 제안 보고 사항을 승인하고 제안된 내용의 실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지속적 활동을 승인
 - 또한, 시스템 기술위원회(Systems Technical Committee)의 전환, 역할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의 명확화, 시스템 자원그룹(Systems Resource Group) 의장과 위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 차기 제네바 회의에서 보고 요망

○ 자문위원회(Ad Hoc Group) 설립

- IEC 2011-2016 마스터플랜 이행 계획과 관련하여 SMB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할 사항들과 관련한 자문그룹 설립
- 우리나라는 4개 자문위원회에 참여 의사 표명
 - * AHG 39 : 이해관계자의 영향력, AHG 40 : 기술위원회 간 협력 증진, AHG 41 : 신규 기술 분야 / ahG 42 : 시스템 차원에서의 신재생에너지

○ EES(전기에너지저장, Electrical Energy Storage) 시스템 TC 설립

- 일본의 전기에너지저장(EES) TC 설립에 대한 투표 결과 공유 및 TC의 활동 범위 논의
 - * 45개의 NC 투표, 44국 TC 설립 찬성
- SMB는 일본의 전기에너지저장(EES) 신규 TC(TC 120) 설립을 승인하며 일본의 간사국 수입을 승인
- 신규 설립된 TC에 대하여 ISO TMB의 의견 수렴 계획
- TC의 업무 영역에 대하여 기존 제품 TC와의 중복이 우려되는 바, 신규 TC의 시스템 TC화에 대한 가능성 검토 요구 (한국 발의)

○ ISO의 조명(Light and Lighting) 신규 TC 검토

- ISO는 독일 DIN이 ISO에 제안한 조명 분야 신규 TC 설립과 관련하여 IEC의 검토를 요청
- IEC 내의 관련 TC(34, 76)와 ISO 신규 설립 TC 간의 업무 영역 중복 조정 계획
- SMB는 ISO의 조명 TC 설립과 관련한 SMB 코멘트를 ISO에 전달할 계획
 - * 대부분의 코멘트(미국, 캐나다, 이태리, 멕시코 등)는 IEC/TC 34 및 76과의 업무 중복 우려, IEC의 고유 표준화 영역 침범 등을 이유로 ISO의 신규 TC 설립 반대

○ TC 의장 임기 제한

- 144차 SMB 회의(12. 2, 보스턴)에서 결의한 TC 의장 임기 제한 부결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CB)가 본 사안에 대해 재고려할 것을 요구
- SMB는 ahG 44를 구성하여 이사회에서 제기된 TC 의장 임기에 관한 우려사항에 대한 SMB의 의견을 재정리하여 제146차 제네바 회의에서 보고 요구

3

제28차 IEC CAB 회의

□ 개요

- 일시 : 2012.10.2(화) 08:30~17:30
- 참석자 : 백수현위원 (CAB위원)
 - ※ 김준호연구관, 함중걸본부장, 백수현교수(동국대) 옵저버로 참석

□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

- IEC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전세계적 적용을 위한 노력
 - 개도국 중심의 IEC 제후국가(Affiliate countries)를 위해 IEC 제도설명 등 필요사항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세부적 필요사항 검토와 계획수립 추진
 - * 작업반(WG 11)에서 '03.2월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차기 CAB회의 시 결정하기로 함
- 전기에너지효율(E3)에 대한 CAB 장기전략 마련 추진
 - IEC 적합성평가 시스템들과 협력하여 전기에너지효율(E3)에 대한 CAB의 장기 전략과 E3 라벨링 규정 마련 추진
 - * 작업반(WG 12)에서 의견조율 후 국제 E3 Labelling Protocol를 개발하여 CAB 보고
- 해양에너지 국제 인증제도 구축 노력
 - 풍력발전과 유사한 조력, 파력 설비 등의 국제인증제도 추진을 위해 현황, 기술동향 및 시장 환경, 테스트 운영 사례 등을 소개
- IEC 시스템-어프로치 표준화 정책과 CAB
 - 풍력발전, 해양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이 시스템 어프로치의 CAB 적용 사례로 검토,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배경, 경과, 활동사항 및 계획 등 논의
- 기타 기구와의 협력 및 ISO/CASCO
 - 유라시아경제 공동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IEC CAB는 '13.2월까지 MoU 체결 추진

- ITU와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적합성평가 체제 구축에 대한 협력
 - * 구축 중인 ITU의 적합성평가프로그램에서 IECEE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통신분야 담당
- IEC CTL의 라벨표시의 지워짐 시험(Scrub test)에 대한 솔벤트 기준의 현실화 요구사항을 IEC CS에 요청하기로 결의
- ISO/CASCO에서 추진 중인 ISO/IEC 17067의 현행 개정건은 IEC CB스킴과 상충되고 있어 충분한 고려를 요청하기로 함

○ 회원국 협조 및 지원

- 각국의 자국어로 번역하여 IEC 홈페이지에 등재하기로 한 '제품의 저작권 침해·위조 관련 사례 및 전략' 지침서의 번역·등재 독려
 - * 현재, 영어, 한국어, 독일어 서비스가 가능하고 프랑스어가 번역 완료되어 등재 예정
- CMC회의 참가인원 증가에 따른 개최비용 상승에 따라 회의 개최국에 대한 재정 지원 결정('14년부터 최대 US\$ 2만불까지 지원)

□ 관찰 및 종합의견

- IEC CA의 전기에너지효율(E3)의 대응을 위한 관련기관 참여 독려 필요
 - IEC에서 논의 중인 '글로벌 에너지효율 라벨링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와의 조화 등을 위해 에너지안전과, 에너지관리공단 등과의 협력 및 전문가 대응활동 독려 필요
- 풍력, 조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CA대응체계 구축 필요
 - 풍력, 조력 발전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추진에 따라 관련 부서(신재생에너지과, 에너지환경표준과)와 신재생에너지보급이용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인증기관, 시험검사기관 등과의 체계적인 대응 필요
- 코디네이터사업과 시스템어프로치 적합성평가 연계 필요
 - 우리나라의 시스템 어프로치 대상 분야와 적용이 용이한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LED 등 우리나라의 코디네이터 사업과 연계하여 시스템 어프로치의 Best Model 개발 필요

- 정보통신분야의 적합성평가 체계에 대한 협력추진 필요
 - ITU와 IEC CAB간의 협력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하여 방통위(전파연구원)과 우리원과의 국제인증에 대비한 범정부적인 표준·인증 협력추진 필요

4 APSG(Asia-Pacific Steering Group) 회의

□ 개요

- 일시 : 2012.10.2(화) 15:00-17:00
- 참가국: 미국, 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10개국 31명
- 우리측 참석자 : 오광해과장, 신명재위원, 노학엽연구사, 김경아전문위원, 전미선팀장
- 목적 : 아태지역간의 표준대표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류 및 국제표준화 활동 공유

* IEC-APRC

- '02년 설치되어 회원국과 제휴국에 자료제공 및 중앙사무국과 IEC TC/SC 전문가의 연계
- IEC 표준 인식제고 및 사용증대 노력, 역내 IEC 참여 증진활동
- 동 그룹은 57개의 TC와 SC를 위해 기술적 지원을 목적
- IEC표준의 인식제고활동, 정보교류, 연수활동, 지역포럼, 회의장소 제공 등

□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

- (APSG 사무국) 2012년 IEC-APSG의 활동내용 보고
 - ASEAN 재생에너지워크숍(12.3.26-27일/베트남), APEC
위해성평가워크숍(12.5.16-17일/싱가폴), PASC 총회(12.6.4-8일/한국) 등
- (미국, 일본) IEC Young Professional Programme(YPP) 소개
 - 미국과 일본의 IEC YPP 성공경험 및 YP선발 방법 등을 회원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효율적인 YPP 활용 유도

- (일본) JISC/IEC/APSG HRD 트레이닝 세미나 홍보
 - '녹색사회를 위한 표준'을 주제로 제10회 APSG 세미나의 성공적 개최 ('11.12.6-7일 / 필리핀 마닐라 / 7개국 11명 참석)
 - 차기회의 일정 : '12.12.3-4일 싱가포르 / 참가등록마감 : '12.10.26일
- 기술개발 및 표준 트렌드 발표
 - (캐나다) 전기전자기술 표준화에 관련 산업의 참여 유도 방법 및 캐나다 정부 정책 우선순위와의 연계 방법에 대한 정보 소개
 - (한국) 한국의 3D산업 표준화 및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활동 연계 소개 (한국표준협회 성우철, '11년 YP)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2020 주요 표준화 전략 산업 소개
 - * 경쟁, 표준, 자유화와 연계한 단계별 전략 이니셔티브 소개
 - (뉴질랜드) Christchurch 지진으로부터 경험한 재난관리 표준의 중요성 소개
 - (태국) 태국의 스마트그리드 추진 로드맵 소개
 - (베트남) 베트남 NC의 활동 업데이트 현황 보고

5 IEC Affiliate 포럼/워크숍 (개도국 협력 프로그램)

IEC Affiliate Member Programme 개요

- ▶ **목적** : 무역장애해소의 일환으로 저개발국가에게 재정적 부담 없이 IEC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에 출범한 IEC 개도국 협력 프로그램
 - 저개발 국가에서 IEC 표준사용 인식의 중요성 확산
 - 저개발 국가들이 IEC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지원
 - IEC 국제표준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는 것에 친숙하도록 IEC NEC(국가전기전자위원회) 설립을 권고
- ▶ **회원국** : 아시아지역, 라틴아메리카지역, 아프리카지역 82개 저개발국가
 - 중앙사무국간사 : Ms. Françoise Rauser
 - Affiliate 회원국 대표 : Mr. Phuntscho Wangdi(부탄)

□ 회의 개요

- 장소/일시 : 노르웨이 오슬로 Congress Centre/'12.10.2~3일
- 참가국 : 개도국 10개국 및 정회원국(참관국) 4개국
 - * 정회원개도국 : 부탄, 나미비아, 카메룬, 수단, 파푸아뉴기니, 탄자니아, 레바논, 스와질란드, 가나, 예멘
 - * 참관국 : 한국, 호주, 남아공, 케냐
- 우리측 참가자 : 임미희연구사
- 참가목적 : 우리원의 개도국표준협력사업 소개 및 IEC 측의 관련 프로그램 현황 파악을 통한 우리원과 IEC와의 개도국지원 공동 프로그램 추진 가능성 모색을 위함

□ Affiliate 포럼/워크숍 주요 논의 결과

- 개도국 NEC(국가전기기술위원회) 설립을 위한 IEC의 지원 강화
 - 최근 카메룬이 NEC를 신설하여 총 36개 개도국에서 NEC설립
- 개도국의 IEC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각 지역기구 설립
 - (아시아지역) IEC-APSG(Asia Pacific Steering Group)을 설립하여 아시아 저개발국가의 참여 유도, 한국과 일본의 중추적 역할 요청
 - * 지역사무국간사 : Mr. Dennis Chew
 - (중남미지역) IEC-LARC(Latin American Regional Commission) 설립, 브라질이 중추적 역할
 - * 지역사무국간사 : Mr. Amaury Santo
 - (아프리카지역) IEC-AFSEC(African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ommission)를 설립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 지원
 - * 지역사무국간사 : Mr. Paul Johnson

- 적합성평가 분야에서도 개도국의 참여 방안 강구 및 지원 강화
 - IECEE는 13개의 dialogue를 통해 개도국 참여 유도 ('12.3월)
 - IECEX는 컨퍼런스와 세미나 개최
 - IEC 아프리카 affiliate 회원국과 AFSEC 회원국을 위한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 제28차(2012년) CAB회의에서 개도국 참여 및 지원 방안을 논의 하였고, 향후 적합성평가 분야에서도 개도국의 참여 증대
- 타 국제기구에서의 개도국 협력 프로그램 추진 현황 소개
 - ISO/DEVCO에서는 국제표준을 채택하고 참조하는 것에 관한 제2차 ISO/IEC 지역 트레이닝 개최('12.3월)
 - UNECE-IECEX 공동컨퍼런스 개최('12.3월, 두바이)
 - UNIDO는 개도국에 전기제품에 관한 실험실 건립 지원
 - PASC 등 지역표준화기구도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점차 확대 예정
- IEC 개도국 협력 프로그램의 2013년 활동 목표 소개
 - IEC CAB과 Affiliate 사무국 사이에 협력 강화
 - TC 61에서 개도국 참여 지원 강화
 - 아시아지역 국가는 IEC-APRC을 통한 지원 확대
 - * IEC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피지의 참여 유도 필요
 -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IEC-LARC을 통해 지원 강화
- TC 82(태양광) : IEC 62257 (도시전력공급) 설문조사 결과 보고
 - IEC에서는 최근 개도국의 도시전력공급 관련 현황을 설문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함

- IEC 62257시리즈는 UN에서 개도국 참여를 위해 특별히 지정한 분야이며, 개도국에 전략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관련 국제표준을 개도국이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기타 의견

- 개도국이 NEC에서 관련 국제표준 채택 시, 자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각 지역 별 공동 규정 마련 필요)
- 개도국과 관련 표준화기구간 MOU 체결을 통해, 표준채택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 NEC가 관련 표준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이행하도록 개도국 내부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NEC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함

IV. 양자 및 다자회의 주요 활동 내용

1 IEC 사무총장 면담

회의 개요

- 일시 : '12.10.2(화) 12:30~14:00
- 장소 : 총회장 내 사무총장 집무실
- 참석자
 - (상대측) Mr. Frans Vreeswijk (IEC 사무총장)
 - (우리측) 최형기국장, 오광해과장, 임헌진과장, 장경진선임

□ 주요 논의사항

- IEC/ISO 및 WTO-TBT 위원회와 연락 및 IEC Finance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할 IEC 중앙사무국 파견관 요건 협의
 - 파견관의 거주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우리측 부담
- ⇒ 긍정적 입장으로 향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협의하기로 합의
- 한국의 MSB 위원 진출 의사를 전달하고 IEC측의 승인 요청

2 한국-독일 양자회의

□ 회의 개요

- 일시 : '12.10.3(수) 14:00 ~ 15:00
- 장소 : Clarion Royal Hotel Christiania, Room 1952
- 참석자
 - (독일측) Mr Wolfgang HOFHEINZ(DE NC의장), Dr. Bernhard THIES (SMB위원) 등 7명
 - (한국측) 최형기국장, 오광해과장, 신명재위원, 백수현위원, 박지식교수, 노학엽연구사, 김경아전문위원, 전미선팀장, 장경진선임 등 11명
 - * '11 Young Professional 참석자 2명 참석

□ 주요 논의사항

- 스마트시티 &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협력
 - 스마트시티는 한국에서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기 시작, 향후 표준화에 대한 연계필요성을 검토 중임을 언급
 - * 2011년 10월 인천에서 'U-City World Forum' 첫 회의 개최됨
 - 독일은 한국과의 스마트그리드 및 스마트시티 표준화 분야에서 향후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고, 적극적인 교류를 약속함

- 신재생에너지의 역할
 - 우리측은 원자력에너지를 표준코디네이터 사업 분야로 삼고 해당 분야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임을 언급, 향후 표준화 협력을 합의
- 한국의 3D 현황
 - 우리측은 3D산업의 국내시장 조기구축과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3D산업 발전전략」을 수립(10.4월)하고 시행 중인 현황을 설명
 - 한국의 표준코디네이터 사무국과 공동작업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에 대해 독일과의 협력의지 표명
- IEC YP의 역할
 - 우리측에서 지난해 선발된 YP 2명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표준관련 업무와 회의에 참여하는 등 YP의 지속적인 역량증대를 위해 지원
 - 독일의 자발적인 기업의 표준참여 환경 내에서 IEC YP 프로그램의 운영은 Mirror committee에 의하여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한국-중국-일본 국장급협의체 회의

회의 개요

- 일시 : '12.10.5(금) 12:30~14:00
- 장소 : Clarion Royal Hotel Christiania
- 참석자
 - 한국 : 최형기국장, 오광해과장, 노학엽연구사, 전미선팀장, 장경진선임
 - 중국 : Mr. GUO Chenguang, Mr. ZHANG Liang, Mr. WANG Hongwu
 - 일본 : Mr. Nobuki Kawamura, Mr. Konno외 3인

□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

- IEC Governance(한국의 상임위, 차차기 회의 진출)
 - 새로이 재정그룹 A에 참여하게 된 중국을 축하하며, 상임위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에 대한 지지를 요청
- 한중일 표준 공동연구 방안 협의
 - 한일, 한중 양국간 조화표준화 추진을 위한 표준 공동 연구 프레임워크 추진 방안 협의 및 신산업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공조 합의

4 IEC Affiliate 관계자 면담

□ 회의 개요

- 일시 : '12.10.5(금) 12:30~14:00
- 장소 : Oslo Congress Centre, Room Forum
- 참석자
 - 한국 : 오광해과장, 임미희연구사
 - Francoise Rauser(프랑스), Phuntsho WANGDI(부탄), Dennis Chew(싱가폴) 등
- IEC Affiliate 프로그램 간사 및 각 지역기구 대표에게 우리원의 ISCP(개도국표준협력사업) 및 NSCAF(국가표준역량진단프레임)에 대해 소개
 - IEC Affiliate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한국의 자체적인 개도국 협력 활동에 큰 관심 표명
 - * 우리원이 개발한 NSCAF의 경우, 수혜국의 표준인프라 현황을 진단하여 수요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에 IEC측에서 관심을 보임
- IEC 측은 개도국이 IEC 표준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지식에 관한 멘토링 시스템 운영하는 것을 계획 중
 - * IEC측은 우리원과의 협력 시 멘토링 시스템 구축부분에서의 협력가능성을 제안

□ IEC 개도국의 우리측에 대한 요청 사항

- 부탄측은 표준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 수단측은 전력공급시설망 확충과 관련하여 한국 산업계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희망함

V. 기타 활동 내용

□ IEC Young Professional (YP) 프로그램 참가

▶ IEC YP 프로그램

- IEC에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기전자분야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의 차세대리더 육성 프로그램으로 YP에게는 총회견학 및 워크숍 참가 기회 제공

○ 참가국 및 인원 : 31개국 55명('12), 30개국 59명('11), 27개국 53('10)

- 한국 참가자 : 박진재(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박경호(LS산전)

○ 주요활동

- SMB, CAB, 한-독일 양자회의 참관을 통한 국제표준화회의의 간접 경험 기회 획득
- IEC IT tools 강의 이수를 통한 IEC 정보 접근 능력 배양
- 다양한 국적의 YP들과 교류를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가능

○ 한국의 IEC YP에 대한 우리원의 지속적 지원 및 양성

- 작년 YP 2명에게 IEC 총회 참가 지원 및 관련 회의에 특정 역할을 부여하는 등 YP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 활동에 활용할 계획임

□ 한국대표단 워크숍 개최(12.10.3일)

- 기술위원회, 정책위원회 참석 국내전문가 37명 참석
- IEC 참석 한국대표 현지보고회 개최를 통한 정보교류 및 한국 대표단의 네트워크 구축
 - 우리원에서는 IEC 활동 현황, IEC 활동 간부 및 실적 등을 발표
 - 기술위원회 의장, 간사 등 간부직 소개를 통한 활동 격려
 - "2011년, 2012년 Young Professional" 소개를 통한 젊은 전문가 참여 독려

□ IEC Open Session(12.10.5일)

- 전기에너지저장 분야와 관련한 우리나라 현황 발표하여,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 관련 산업을 홍보하고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기회로 작용
 - 발표자 : 박지식 (스마트그리드 표준코디네이터)
 - 발표제목 :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저장시스템 관련 한국의 활동'
- 기타 발표자
 - (노르웨이) 발표자 : Prof. Kjell Sand / 주제 : 스마트그리드 도전과 기회 - 노르웨이의 전망
 - (노르웨이) 발표자 : Mr. Jan Ove Gjerde / 주제 : 변환시스템 운용자의 미래 도전 - 스마트그리드가 해결책인가?
 - (노르웨이) 발표자 : Mr. Anders Holm Foosnas / 주제 : 변환시스템 운용자의 미래 도전 - 산업 전망은?
 - (중국) 발표자 : Dr. Yinbao Shu / 주제 : 대규모 재생에너지의 그리드 통합 - 도입
 - (미국) 발표자 : Mr. Adam Reed / 주제 : 대규모 재생에너지의 그리드 통합 - MSB 백서
 - (일본) 발표자 : Mr. Aiko Nakamura / 주제 : 일본의 대규모 저장 시설

VI. 관찰 및 평가

□ CAB위원 신규선출 및 2018년 IEC 한국 유치확정

- 2013년~2015년 CAB위원에 동국대 백수현 교수 선출, 우리나라는 '07년부터 CAB 위원에 계속 진출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임원직 수임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및 전략 필요
 - * 국제표준화기구의 임원 및 의장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더욱 활성화 하고, 국내 의장간사협의회 내에도 회장, 부회장, 간사 등 내부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IEC의 국내유치 확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기전자분야에서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내 기업 및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당면 과제

□ IEC와 타 국제표준화기구 및 지역기구간의 협력 증대 필요

- ISO/DEVCO, UNIDO, UNECE, PASC 등 타 국제기구와 IEC와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 SMB/PASC member회의에서 제기된 아태지역 표준포럼 설립 등 한국의 표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집중적 활동 필요

□ IEC 개도국 협력 프로그램의 검토

- IEC는 무역장애 해소를 위해 개도국에 관련표준을 무료로 제공하고 NEC설립을 지원하는 등 개도국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
 - 우리원의 개도국지원사업을 바탕으로 IEC와의 협력함으로써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역량 확장이 가능
 - * 우리원의 프로그램을 전기전자분야에 접목시키는 작업을 통해 IEC에 적합한 협력이 가능할 것임

□ IEC Young Professional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IEC는 금번 총회기간 중에 다양한 YP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통해 YP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각국의 차세대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면모를 보임
- 우리나라도 선발한 YP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활용하여 차세대 중요 인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 YP의 활동분야에 전문위원회 위원 참여(옵저버)를 해당 부서에 요청

VII. 향후 계획

□ IEC 총회 참석결과의 지식 포탈 등을 통한 공개

- 출장결과 보고서
- 제75차 IEC총회 결의안 및 사무총장 활동 보고서

□ 양자협력 후속 조치

- IEC Affiliate 프로그램
- 전기전자분야 표준화 작업에 대한 멘토링 시스템 구축 관련 우리원의 참여방안 모색

□ 차기 총회에 대한 글로벌 스폰서십 참여 홍보

- 선진국 기업은 IEC 위원회 참여, 후원, CEO 인터뷰 등 기여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이미지 구축에 적극적이거나, 우리는 참여 미흡
- * 지멘스·파나소닉·코닝 등은 IEC 중점사업인 글로벌 비전 인터뷰 등에 적극 협조하며, 지멘스 및 히타치의 CEO는 IEC 회장, CAB 의장으로 활동 중
- IEC 부회장 및 회장진출을 위한 전략 마련 등 '18년 총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개최 계획 수립

□ IEC 총회 기간 중 주요국과의 양자회의 및 CB, SMB 등 대책회의를 위한 회의장 임차 방안 검토